



News Letter

January 2006 _제3호

<http://uit.dongseo.ac.kr>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전문인력양성사업단

동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부경대학교 전기제어계측공학부, 경남정보대학 컴퓨터정보계열



재미있는 생활 속 IT 이야기

- 역사 속의 암호 이야기(1)

로마 제국의 줄리어스 시이저(Caesar)는 암살당하기 직전에 가족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긴급 통신문을 전달받았는데, 무슨 뜻이었을까?

"EH FDUHIXO IRU DVVDVVLQDWRU."

암호해독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체절명의 선택이었다.

- 박영수, 역사 속에 숨겨진 암호이야기에서 인용

로마제국은 1천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드넓은 땅을 통치했고, 로마 역사에는 수많은 영웅과 위인들이 등장한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럽 전역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라틴어로 유럽인의 사상을 지배하는 "문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탁월한 재능에 의해 천하를 통일하고 제왕이나 다름없는 1인 독재의 위치에 있었던 시이저는 사전에 암살을 피할 수 있었으나, 명실상부한 "황제" 칭호에 대한 집착과 항복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로 인해 불운하게 죽는 운명을 맞이했다. 암살자 블루투스는 군사 원정 기간에도 철학 서적을 끼고 다닐 정도로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철저한 공화주의자였다. 그런데 시이저와 블루투스 두 사람 사이에는 기이한 인연이 있었다. 블루투스의 어머니 세르빌리아는 시이저의 젊은 시절 애인이었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으나 비밀리에 연애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애인의 아들인 블루투스가 시이저를 암살하려는 음모의 주동자가 되었던 것이다.



율리우스 시이저

파르티아 원정을 사흘 앞둔 3월 15일, 일찍이 폼페이우스가 세운 석조 극장의 부속 건물에서 원로원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외의 다른 속주에서 시이저의 칭호를 황제로 하자는 제안이 결의에 부쳐 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시이저의 아내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며 시이저의 출근을 말렸다.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원로원 회의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문제의 암호 서신이 시이저에게 긴급히 전달되었으니, 이 때 대비를 하였다면 시이저는 암살을 피할 수 있었다.

평소 시이저는 가족과 비밀 통신을 할 때 각 알파벳순으로 세 자씩 뒤로 물려 쓰는 방식의 "Caesar Cipher"를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의 암호 서신에 대한 해독 방법은 세 자씩 앞으로 당겨서 읽는 방법이다. 이를 해독하면 다음과 같아진다.

"BE CAREFUL FOR ASSASSINATOR" 즉, "암살자를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시이저는 암호문을 읽지 않고 그대로 원로원에 출석하게 되었으며, "블루투스 너 마저도"라는 유명한 마지막 말을 마치면서 애인의 아들인 블루투스에게 암살당하였다.

시이저의 암살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황제" 칭호에 대한 지나친 집착, 평소에 가족들과 암호 서신으로 통신해야할 정도로 신뢰성 문제 및 권력다툼,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암호 때문에 오히려 암살을 도와주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숨어있음을 생각해본다.

컴퓨터정보공학부
이훈재 교수

